

# “치매 돌봄 두텁게”...순천시 전남 최초 지원모델 구축

물품 지원 중위소득 140% 이하로

치료·검사비 지원 치매 관리율 향상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돌봄’ 진행

순천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남 최초로 ‘순천형 치매 돌봄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치매 환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

소모품(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까지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조호물품 지원은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일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전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돌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순천시치매안심센터는

소득 기준 없이 치매 치료 관리비(월 3만원)와 정밀 검사비(23만원)를 확대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번 조호물품 확대 지원은 이러한 ‘순천형 돌봄’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퍼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본격적인 안과를 앞



두고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밀착형 현장 행동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5일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200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 겨울 이불을 전달하며 온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방문 간호 인력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 난방 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찾아가는 돌봄’ 형태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한랭 질환 예방 수칙 안내와 함께 말벗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 개인과 가족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정책을 발굴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 곡성군-전남과학대, 지역소멸 극복·동반성장 머리 맞대

관·학 지역발전협의회 전략 논의

유학생 유치·지역 정주 연계 협력

수상레포츠 관광 연계 학과 개설도

곡성군과 전남과학대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2025년 제2차 관·학 지역발전협의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해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협의회는 그동안 일자리 연계 교육과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실질적인 협력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군 기획실장과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총 22건의 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양 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운영, 천원의 아침밥 지원, 토란 우렁콩종 선발 등 기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신규 협력 과제들이 대거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주요 제안으로는 ▲유학생 유치·지역 정주



곡성군은 최근 군청에서 ‘2025년 제2차 관·학 지역발전협의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곡성군 제공>

연계 ▲고령자 디지털 역량 강화·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지역민 마음돌봄 사업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연계 학과 개설 ▲농촌 봉사활동 확대 등이 논의됐다.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유학생 유치’로 군과 대학은 단순한 학생 유치를 넘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연계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며 관광·서비스·돌봄 등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 첫해를 맞아 지자체와 대학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2026년에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교육 확대를 위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화순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20대 확대

화순군은 29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바우처택시’ 운영 대수를 기존 15대에서 20대로 5대 확대해 운

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은 일반 택시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수요 급증에 따른 배차 지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용자는 하루 4회,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00원에서 최대 1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확대 배치를 통해 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교통약자들이 예전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고흥군, 풍양면에 27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내년 5월 개장...지역 경제 활력 기대

고흥군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발맞춰 군 최초의 27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완공,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풍양면 일원에서 ‘풍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진>

군은 현재 남부권(풍양), 동부권(포두), 북부권(과역) 등 3개 권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진행 중이다.

남부권의 거점이 될 풍양 파크골프장은 총면적 3만4천55㎡ 부지에 27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3월 착공해 9개월여 만에 준공됐으며 관

리동, 대기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특히 고흥군 최초의 정규 규격을 갖춘 본격적인 파크골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식 개장은 잔디 생육 및 보호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와 류제동 군의회 의장, 송형근 도의원, 김은수 군체육회장,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으며, 군은 향후 이곳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풍양 파크골프장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힐링 공간이자 고흥을 대표하는 새로운 체육 명소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장성군, 내년 ‘돌봄통합지원’ 본격 시동

조례 제정·협의체 구성 준비

장성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 지원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돌봄통합지원사업은 그동안 기관·단체별로 분절돼 제공되던 노인, 장애인 대상의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가 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7월 ‘2025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망을 다졌으며, 9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과 동행 도우미를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

작했다.

<사진>

이후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요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지원 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해 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

군은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가족행복과 내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사업은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 정책”이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민간 요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텁고 파스한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보성군 내년 농촌진흥사업 모집

내년 1월15일까지 6개분야 45개 사업

보성군은 29일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2026년 농촌진흥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2억원 규모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식량작물 재배기술(3개) ▲스마트 융복합 생산모델 보급(18개) ▲지역 특화 및 신소득 작물 육성(5개) ▲농가 경영 개선·경영비 절감 사업(2개) ▲청년농업인 육성(10개) ▲농산물 가공 상품화(7개) 등 총 6개 분야 4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은 보성군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061-850-57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평가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새로운 영농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담양군, 道 축산정책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담양군은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축산정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로써 군은 2023년 장려상,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축산정책, 동물복지, 축산경영, 축산지원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실적과 노력도, 자체 우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담양군은 ▲옴통한우 송아지 선발 ▲개 사육 농장 전·폐업 추진 ▲축산물 이력제 지도·단속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조사료 파종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가족분노 위탁처리비 지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 등 담양군 실정에 맞춘 자체 시책이 축산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써준 축산 농가 덕분에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